

2021년 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요지

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최종 심의를 통해 2021년 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『지리적 공간범위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극한고온현상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(저자: 김유진·최영은, 대한지리학회지 제55권 제2호, 83-95)』를 선정하였습니다.

범세계적 기후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극한고온현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의 증가는 에너지, 보건, 농업 등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, 이 논문은 매우 시의성 있는 지리학 연구로, 흥미로운 문제의식과 적절한 자료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.

특히 이 논문은 전통적으로 지리학의 대표적 연구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유형 구분이라는 연구의 틀을 극한고온현상의 공간적 분포에 적용함으로써,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면적에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 해당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기여도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연구자들의 논문은 지난 1년 동안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여러 우수한 논문 가운데에서도 돋보이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나아가 지리학에의 기여가 크다는 점에서 2021년 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6월 25일

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